

주간에 News InCh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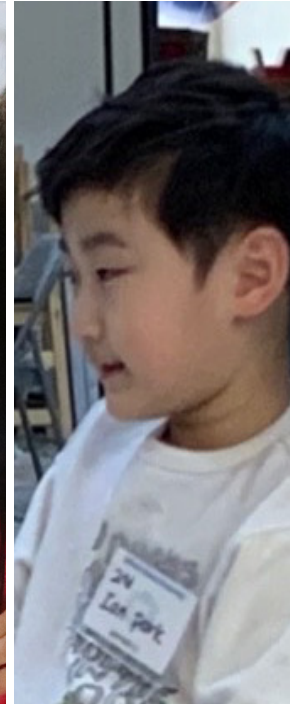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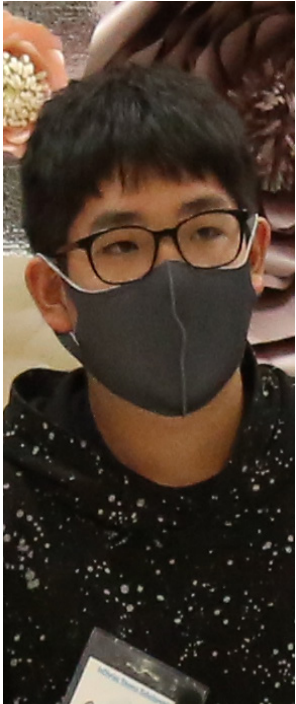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2
Feb. 2021
Vol.9 No.02

- 온라인 주안예후련
- 발렌타인 기념 행사
- 청년부 / EM Logos
- 교우소식 / 기고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여호와의 말씀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을 암송하는 학생들 <사진: 양영 기자>

■ 주안에세마장학회

첫 성경암송 38명 참가 성황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walk in step with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

지난 1월 30일과 31일 오후 벨리체플 친교관에는 시편 말씀이 낭랑하게 흘러 나왔다. 주안에장학위원회에서 금년부터 장학생 선발 방식과 대상을 대폭 확대 변경한 후 첫 성경암송 행사가 열린 것이다.

지나해까지 12학년 이상 대학생과 신학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서와 에세이를 제출 받아 선발했지만 금년부터는 초등학교생인 ICKids부터 지급 대상을 넓히고 매월 성경말씀을 암송한 성적을 바

탕으로 9월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학위원회에서 지정한 시편1, 23, 84, 121편과 야고보서 1:1~11, 3:1~12절,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8:1~11절, 전도서 12장, 빌립보서 2:1~12, 로마서 12장(가산점 부여) 말씀을 장학위원들 앞에서 암송하도록 했다.

이번 암송행사에는 양일간 38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한달여간 열심히 연습한 실력을 발휘했다. 일부 참가들은 4개 시편과 야고보서 등 벌써 6~7장 분량을 모두 암송해 심사위원들을 놀라게하기도. 몇몇 학생들은 너무 긴장해 암송 중간에 애를 먹기

도 했지만 한사람의 탈락자 없이 모두 통과해 좋은 출발을 보였다.

누구나 어릴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커서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에 이 성경암송에 주안예교회 모든 학생들이 참가해 주기를 소망한다. 암송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조마조마해하는 부모들의 모습에서 차세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성경암송 참여와 문의는 담당 교역자들이나 장학위원회 통해 할 수가 있다.

| 조용대 기자 |

■ EM Valentine's Day Event



“Do everything in love.” - 1 Corinthians 16:14

The In-Christ Community Church Valentine's Day event brought in the first major holiday event of 2021 for the EM, and what a fantastic way to kick off our events calendar! There was something for everybody: who knew that making soap would be so involving? From cutting the material (shout out to all the inner-chefs and your cutting-board skills), melting it down, and coloring it, to shaping the soap with the molds and making it your very own, we all got to see our inner artists blossom. And my goodness, are there some creative members! I saw dog house (more like mansions) with an actual small dog inside, Hello Kitty, cacti, and of course, your roses and hearts. It was really soap-prising to see how many options there were, and the scents; my goodness, even as I write this, I'm taking whiffs of a rose-centered soap bar my mom made and



it's brightening up my day!

Most of all, the camaraderie and fellowship was so pure; the joy was palpable in the room. Amidst everything going on in the world, and even within our faith, it was so heartwarming to see all of us together again, serving one another in the love of Christ. As some of us may already know, Valentine's Day was originally a Christian feast, dedicated to honoring one or two martyrs

named Saint Valentine. As the years have gone by, we have, of course, seen it become commercialized as a time to celebrate love. Well, let me be the first to attest that indeed, I saw a lot of love shared: from letters to brothers and sisters, kind words and encouragements said about one another's soaps, and even the young children, running around, sticking "Jesus loves you" and John 3:16 verses on people. And this love was not the commercialized love the rest of the world knows, but the love that those martyrs had for Christ and His people: a selfless, genuine, unconditional love. And just as soap helps you cleanse your body of impurities, what a joy it was to see our little soap-making event be a time in which we could wipe clean our worries and thoughts, even if for a moment, and simply love one another as Christ has loved us. **Paul Yang**

■ EM Leadership Training/ Lord's Steward

Every Wednesday, our ICCC EM leaders are being trained in the word of God about what kind of leader God is looking for. For the 4 out of 6 weeks that we have been in this training titled "Lord's Steward", we are being educated, challenged and convicted of what kind of steward we had been before and what kind of servant we should be from now on. God is leading us to a place of re-

pentance as we face the discrepancy between our current place and the place that God calls us. The teaching led by Senior Pastor Choi is both informative and practical so that us leaders can learn and apply it in our lives and in our given responsibilities at church. We are learning that being a leader requires so much more than what we used to know. We are realizing how great of a privilege it

is to be called by God to serve Him and His people. We are being challenged to give ourselves up for the cause of the kingdom of God. We pray that we become the kind of steward and servant that God wants us to be. Please pray for our EM leaders that God would train us to become leaders that serve like Jesus. And please pray for Pastor Choi as God uses Him to teach us. **Pastor Sam Lee**

■ 코람데오 발렌타인 행사



직접 담근 자몽청 집집마다 배달 '사랑 듬뿍'

세상이 힘들어졌어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태양은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시간은 또 그렇게 흘러간다. Covid19을 겪어내고 있는 기간동안 너무나 단절되어 버린 대면의 순간을 아쉬워 하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서로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코람데오 임원진은 발렌타인스 데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임원들이 직접 담근 자몽청을 예쁜병에 넣어서 그럴듯한 포장에 리본 장식까지 마친뒤 한사람 한사람, 집을 직접 방문하여서 집앞에 놓고가는 방식으로 전달을 하기까지, 완벽하게 특별 이벤트는 마무리 되었다.

코람데오 소속의 청년들이, 달콤한 자몽청을 마시면서 곧 다가올 일상을 상상해보는 달달함까지 함께 맛 보시게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 주신 임원들께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 오희경 기자 |



■ 코람데오 세미나/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1월 11일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6주간의 세미나가 시작 되었다. 담임 목사님께서 코람데오를 위한 세미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준비하셨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코람데오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시작 되었다. 또한 이 세미나를 통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위하여 많은 청년들이 함께 세미나를 듣고 있다.

| 양하민 기자 |



■ 응답하라 코람데오

‘이게 얼마만이야’ 떨어져 앓아도 반가운 만남

1월 24일, 온라인으로만 모였던 청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체육관에서 6피트마다 테이블을 놓고 점심을 먹으며 모임이 시작되었다.

온라인 예배에 지쳤던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 오랫동안 보지 못하였던 청년들도 다 함께 참석하였다.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한 공간에서 밥을 먹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게임도 하며 모두들 게임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푸짐한 상품도 함께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지막으로, 항상 줌을 통해서만 하던 목장 모임을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근황도 묻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하루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고 매주 들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 교회에 나와 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를 소망한다. | 양하민 기자 |



새출발 축하합니다!

김혜림 성도(김경일 장로/김옥희 권사 장녀) 결혼 그동안 주안예교회의 청년부 일원으로 교회를 섬기던 김혜림 자매가, 앤드류 라 형제를 신랑으로 맞아 가정을 이루었다.

지난 1월 23일 주안예교회의 밸리채플 본당에서 가족들만 참석한채 조용하고 의미있는 결혼 예식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용감하게 새출발을 다짐한 이들 커플에게,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지혜와 복을 듬뿍 받기를 원하며 부모님되시는 김경일 장로님과 김옥희 권사님게도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



골프회, 교회 관리용 전동차 기증

“10에이커가 넘는 밸리채플 캠퍼스 곳곳을 관리하고 점검하는데 골프카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건강과 친선을 위해 매주 함께 골프 모임을 갖는 드림골프회(회장 정도영 장로) 에서 전동차를 구입해 지난 17일 교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물품 운반과 시설 점검은 물론 교회 동편 시냇물로 내려 가는 길을 따라 관리가 소홀한 교회 경내의 순찰에도 유용하게 사용 되리라 믿는다.

■ 전문가 기고/ 자궁경부암 예방

‘11~12세 HPV백신접종, 20대부터 팍스미어 검사’

The cervix is the bottom/opening part of the uterus in the vagina. Cervical cancer typically doesn't show any symptoms in the early stag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get routine screening regularly. Possible symptoms may include abnormal vaginal discharge, vaginal bleeding randomly or after intercourse, pain with intercourse, etc.

자궁경부는 자궁의 하부, 쉽게 말해, 자궁의 입구를 말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궁경부암으로 의심해 볼 만한 증상으로는 비정상적인 다량의 질 분비물이나 출혈, 혹은 성관계 후 질 출혈과 통증 등이 있습니다.

Screening tests look for cancer cells/ abnormal cells that can turn into cancer in the cervix. This involves pelvic exam and vaginal speculum exam. Pap smear test is the most common test done by taking cells from the surface of the cervix, which is sent to the lab where they look at the cells under a microscope.

선별 검사는 자궁경부에서 암으로 전환 될 수있는 암세포 혹은 비정상 세포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골반 검사와 질 검경 검사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Pap smear test인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는 자궁경부 표면에서 세포를 채취하여 실험실로 보내서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는 가장 일반적인 검사입니다. 자궁경부암은 대개 자궁경부의 세포 변화로 시작되는데, 이 검사를 통해 자궁경부 암이나 자궁경부암 전 단계인 병변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PV test can also be done from the pap smear. HPV (human papillomavirus) is the virus that can cause abnormal cells/ cervical cancer. Most people who have sex will be exposed to HPV at some point, so having HPV is very common.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HPV and some types of HPV can cause genital warts. Having HPV does not mean you will get cancer. HPV infection typically goes away on its own. Unfortunately for some people it persists and may cause these abnormalities.

자궁경부암의 주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virus) 입니다. HPV는 비정상 세포 혹은 자궁 경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성관계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HPV에 노출되므로 HPV 감염은 매우 흔합니다. 다른 유형의 HPV로 생식기 사마귀 혹은 성기 사마귀라 불리는 곤지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HPV가 있다고해서 모두가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HPV 감염은 일반적으로 저절로 사라집니다. 불행히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지속되어 이러한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HPV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pap smear test)를 통해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Pap smear is recommended to start at age 21 even if you are sexually active at a younger age. It is recommended that you see a gynecologist yearly for a check up but pap smear itself may be done every 3 years and may stop at age 65-70 years old if no previous known abnormality. Pap smear is recommended even if you had HPV vaccine.



이가이 집사

자궁경부 세포진(Pap smear) 검사는, 더 어린 나이에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해도, 21세에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연간 1회의 정기검진을 받기를 권장하며, pap smear 검사 자체는 3년마다 시행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항이 없는 경우 65-70세에 중단 할 수 있으며, HPV 백신을 접종한 경우라해도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권장합니다.

HPV vaccine is recommended to decrease the risk of cervical cancer, ideally before starting sexual activity. HPV vaccine can be done at age 9-45 (women and men) but most doctors recommend it around the age 11-12. Few risk factors for cervical cancer includes cigarette smoking, multiple sexual partners, immunosuppression, etc.

자궁경부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다수의 성관계 파트너, 면역력 저하 등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HPV백신으로 몇 종류의 HPV를 예방할 수 있고, 성관계를 처음 갖기 전에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합니다. HPV 백신은 9-45세 사이의 여성이나 남성이 접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의들은 11-12세 사이에 접종하기를 권장합니다. 접종을 위한 더 자세한 사항은 소아, 청소년 전문의나 주치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f your pap smear comes back abnormal, it does not mean you have cervical cancer. Depending on your age and abnormality of the pap smear, you may need repeat testing or a further test called colposcopy where we look at your cervix with a magnifying camera and take tiny samples of tissue from the cervix (biopsy), which is tested at the lab for the abnormality. Please consult your OBGYN if you have abnormal pap smear.

자궁경부 세포진(pap smear) 검사 결과가 비정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닙니다. 나이와 pap smear 검사 이상에 따라 재검사나 확대 카메라로 자궁경부를 관찰하고 자궁 경부에서 작은 조직 샘플을 채취해 검사하는 질 확대경 검사(colposcopy) 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Dr. Grace Lee, M.D. FACOG OBGYN / 산부인과 전문의 |

봄을 기다리듯 그 나라를 꿈꾸며...

뜰은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잎을 다듬고, 정리하며 좋은 영양도 준비하기 위해 뜰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 삽도 쓰고, 호미도 쓰고, 빗자루도 쓰면서 정리하고 다듬으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본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생각에 젖어 있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가는 일이 기도라고 생각한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바꾸어 가는 나만의 작업이 기도가 아닐까? 세상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익숙해지도록 나를 끌고 가는 순종의 훈련이 기도라는 나만의 정의를 갖고 주안교회의 나아갈 길을 기도하기 위해 새벽이면 화면에 모여드는 기도자들을 반긴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을 때 행복하고 성장 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습관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행복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기도자 한분 한분이 영상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상대의 순종의 모습을 서로 반긴다.

세상은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할 시간에 모이는 것을 금지시켜놓아 기도의 줄을 끊어 놓았던 우리에게 줌을 통해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길(AMPM 기도회) 이 열리게 되었을 때 기도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게 되었다.

교회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 순종하는 기도자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안타까움과 보살핌이 보태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없고,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도 없이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글로 써 있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

쁘게 해 드리길 갈망하여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에 더 자고 싶은 잠의 유혹을 깨트리고, 마냥 나태하고 게으러지는 환경을 깨트리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이 작은 동기 부여까지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발을 뗀 사람들의 만남이었다. 하나님께 하루의 첫시간을 드리고 싶은 소박한 순종의 발걸음이었다.

이 기도의 삶이 익숙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색하지 않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한분 한분의 헌신을 감사해 하며, 서로를 독려하는 이 시간이 소중하다.

A.W. 토저는 모든 피조물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어느 것도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에 의한 것이고, 그것에 속한 것이다. 레이디 줄리안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가장 높은 기도이며, 그것은 우리 필요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 이른다.” 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를 올려 드리며, 그 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엘샤다이 하나님께 아뢰이기를 시작한다.

우리는 새벽이되면 또 엘로힘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하루 하루의 새벽을 여는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해 왔던 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 드렸다. 우리는 완쾌를 기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낙원으로 데리고 가셨다.

뜰이 봄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 뜰을 가꾸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쓰듯이 우리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간다. 말세가 오면 우리가 시간을 쏟았던 기도와 말씀의 훈련으로 우리는 힘든 종말을 이겨내게 될 것을 믿기에 이 새벽도 즐겁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 이예스더 기자 |

예기치 못한 해고통지 그러나 감사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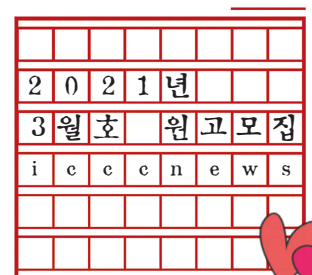
지난 한해 팬데믹으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5년을 매니저로 일한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으며 20년을 일했던 업종으로 돌아갈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을 온전히 남편의 아내이자 제 딸의 엄마로 있게 하시며 조금의 여유도 없고 설새없이 달려온 저의 인생을 기도를 통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레베카 집사

저의 어릴적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으로 죄인으로 밖에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저의 마음은 후회와 아픔만이 가득했습니다. 또 주님께는 얼마나 죄송하고 죄송했는지요... 지난 날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죄로 얼룩질 수 밖에 없는 저의 인생을 그분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채우신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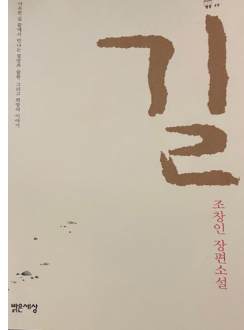
팬데믹이라는 너무나도 큰 힘든 상황을 통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깨달음의 보물을 얻게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감사가 넘쳐나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추천도서/ 길(조창인)

철부지 어른들에게 던지는 물음표

이달에 소개하고 싶은 책은 조창인 작가의 “길”이라는 소설이다. “가시고기”나 “등대지기”라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조창인 작가가 그 이후에 선보인 작품인데, 읽는 이로 하여금, 세상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짚어보게하는, 그래서 가슴이 찡해지는 여운을 오래 간직하고 싶게 만드는 작품이다. 늘 우리의 주위를 맴도는, 믿음과 배신, 강함과 약함 그리고 변화... 소설속의 주인공을 내세우며 작가가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건 세상에서의 강함을 앞세우는 동안 상실해 버렸을지도 모를 사랑과 소망이었음을 작가의 후기를 통하여 그는 고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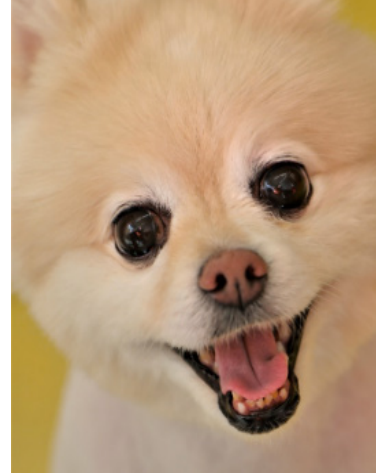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나요?” 겨우 열세 살 소년의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늘 울바름과 그릇됨의 구별을 정확히 해 낼 줄 아는, 나이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성숙해져버린 주인공 “승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른인척 하는 철부지들 때문에 난처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용서와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주던 아이 “승우”. 세월이 밀려서 어쩔수 없이 어른이 되어 버리고 만 수많은 오늘의 어른들에게 “승우”의 나직한 목소리가 가끔 씩이라도 아픔으로 떠오른다면, 그제서야 이 작품은 완성의 마침표를 찍을수 있으리라 짐작해보면서, 오늘도 가까이에서 헤메이고 있는 또 다른 “승우”를 찾아내어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공유하고 싶다.

| 오희경 기자 |

■ 포토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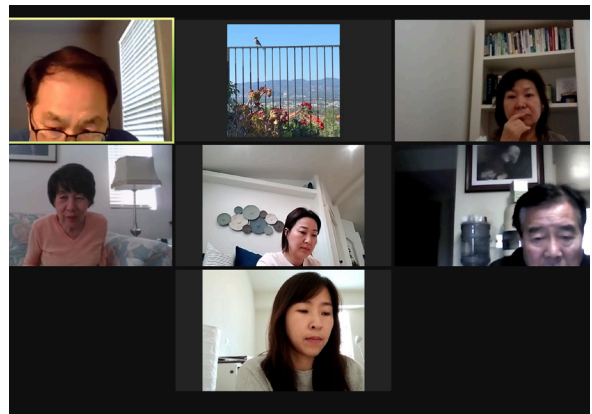
내가 항상 헤헤하는 이유는...



나는 사는데 즐겁다. 항상 헤헤 하면서 웃고 산다. 난 슬픔과 아픔을 모르고 사는 곰돌이이다. 오늘은 무슨 간식을 먹을까 그 생각뿐이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웃지 않고 산다. 나도 살짝은 걱정을 했으나 걱정만 하면 뭘 하나 하는 생각에 편안한 마음으로 살기로 했다. 머리와 마음을 비우니 내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다. 걱정만하다 가면 나의 인생은 너무 짧다. 앞으로도 좋은 날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참 멋있고 아름답다.

| 사진, 글: 최호기 기자 |



팬데믹 속 성경통독 열기

혼자의 시간, 코로나가 가져다 준 단절감과 외로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주안에말씀 16기에 등록된 40여명의 성도들이 매주 한차례 온라인 성경통독시간을 갖고 있다.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민유선, 양하민, 이성은, 이에스터,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 양명,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